

사회

주5일 수업 전면 시행, 토요일교실 운영 한다는데

“어떻게 하란 건지” 학교마다 혼란

일부 학교 강사 못구해

“새학기 시작이 3월 2일인데 다음 날부터 정규 수업도 아닌 주 5일제 토요일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이번주부터 시작하는 초·중·고 주5일제 수업 전면확대에 따른 토요일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프로그램을 맡을 강사 확보도 지지부진하다. 광주 일선학교 가운데 70%만이 토요일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를 초빙키로 했고, 나머지 학교는 아직도 강사를 채용하고 있다.
이런 실정 때문에 광주·전남 대부분 학교는 주5일제 수업 전면확대 첫날인 3월3일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일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10일께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떡 케이크’ 만들기 25일 광주시 북구 남도향도음식박물관에서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떡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

“장례식장 경영권 내놔”

광주경찰, 상습 협박 조폭 들 검거

수십억원에 이르는 장례식장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던 조폭력배들이 경찰에 걸려들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

일 장례식장 대표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광주 지역 모 폭력조직 행동대장이 46)씨와 행동대원 최모(44)씨 등 2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

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8월15일 광주시 관산구 서모(46)씨의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죽기 싫으면 대표이사직을 넘겨라”고 협박해 영업권 포기각서를 작성토록 강요하는 등 장례식장 운영권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8월께 조직폭력배 10여명을 동원해 서씨의 장례식장 사무실을 무단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자동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770

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서씨에게 7억5000만원을 투자한 뒤 “돈을 제때 갚지 않았다”며 협박해 55억원에 달하는 장례식장 운영권을 빼앗으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며 “이씨 등의 행위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8명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총인비리 금호산업 상무·팀장 구속

심의위원회에 5000만원 건내려 한 혐의

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26일 총인저감시설 시공사 선정 전에 심의위원회에 5000만원 건내려 하고 탈락한 뒤에도 잘 보달라며 금품을 건넨 금호산업 김모(48) 상무와 조모(45) 팀장을 뇌물공여·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구속했다.
입찰에서 탈락한 금호산업 컨소시엄까지 총인저감시설 선정 전에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을 전달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업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 심사위원 대부분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 상무 등은 지난해 3월 말 시공사 선정 전 심의위원회 16명 가운데 1명인 교수에게 5000만원을 건내려한 혐의

다. 당시 이 교수는 이를 거부했으며, 김 상무 등은 시공사 선정에서 탈락한 뒤인 지난해 8월 이 교수에게 “앞으로 잘 보달라”며 5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총인저감시설 비리 사건과 연루된 구속자는 대림산업 윤모 상무, 심사위원이었던 광주시 공무원 2명, 대학교수 1명, 금호산업 관계자 2명 등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대림산업 호남지사장, 또 다른 광주시 공무원, 대학교수 등 3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982억원 규모의 총인시설 시공사 선정에는 대림산업, 금호산업 등 4개 대표 업체가 각각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5·18 기동타격대장 윤석루씨 재심 무죄

광주지법 “정당방위”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지난 1980년 5·18 당시 전남도청 수습위원으로 기동타격대장을 맡았다가 신군부에 의해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윤석루(56)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항한 뒤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0년 5월 27일부터 1982년 12월 25일까지 옥고를 치렀다. 이날 판결문을 읽던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 선배들의 잘못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군부의 잘못된 정권관탈에 대해 윤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일원으로 윤씨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1980년 5·18 당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계엄군에

대항한 뒤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0년 5월 27일부터 1982년 12월 25일까지 옥고를 치렀다. 이날 판결문을 읽던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 선배들의 잘못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지내기도 한 윤씨는 “5·18로 인해 2년 7개월간 옥살이를 했지만 단 한 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다”며 “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판단해주 기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문일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집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지난 23일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에 돈을 건넨 혐의로(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김문일(65) 전남도당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위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대의원에겐 전달한 혐

의로 기소된 대의원 한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한모(47)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위원장은 자신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을 앞둔 지난해 8월29일 오후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식당에 모인 대의원 한씨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원침 (8510) 김장두



공원 주차장서 차량 화재 20대 남성 불에 타 숨져

26일 새벽 4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모 공원 주차장에서 박모(28)씨의 코란도 승용차가 전소해 박씨가 불에 타 숨졌다는 것을 택시기사 정모(51)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유족들은 경찰에서 “아들이 지난 20일 오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지난 21일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보험금 티려고 고의로 식당에 불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불을 내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여·3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
○재판부는 “방화행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방화로 인한 재산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한편 최씨는 지난 2009년 9월 모두 12억원 상당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 2010년 5월2일 새벽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빌딩 2층 단란주점과 식당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www.hiddinkhotel.com
문화수도 중심부에 위치한 -
히딩크관광호텔
문화수도광주!
중심에 위치한 비즈니스호텔 히딩크호텔에서
당신을 VIP로 모십니다.
주요시설: 65개의 객실, 낭만적인 분위기로 보석을 세팅하듯 소중히 모시는 히딩크호텔 웨딩홀, 최신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진 품격있는 연회장
부대시설: 스카이라운지, 커피숍, 정통일식레스토랑, 옥사우나

광신대학교
2012-1 여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재학(학력제한 없음)
::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 교육일시 : 2012년 3월 5일 개강 / 한 학기 15주 /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 수강료 : ① 등록금 : 700,000원(한 학기당) ② 입학금 : 50,000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cmx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전월료 : 5,000원
:: 혜택 : ① 매학기 신청지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② 본교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학생증 발급(학생에 준하는 열람 및 대출가능)
여성가족부 인정
2012-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교육일시(총100시간) ▶ 월, 화, 목, 금 오후 6:00~
모집대상 <각 학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교학처 (062)605-1112, 1063